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5. 26. Vol. 21

■ 농정이슈

박대통령-WTO 사무총장, 쌀 관세화 유에 관련 논의

■ 정책브리핑

주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

■ 연구지원

2014년 4월 생산자 및 증산출 물가지수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〈박대통령-WTO 사무총장, 쌀 관세화 유에 관련 논의〉

【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방한 결과】

- **[WTO 사무총장 방한, 5.15~16일]**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, 도하 개발아젠다(DDA) 협상 진전방안, 한국과 WTO간 협력 강화방안 의견 교환

〈WTO 사무총장 주요일정〉

- **(서울대 국제대학원 및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)** 글로벌 무역자유화 위한 DDA 협상의 진전 필요성 강조, 한국이 무역을 통한 성장으로 많은 개도국에게 영감(inspiration) 제공한다고 평가
- **(국회의장 예방)** 다자무역체제의 활성화 방안 및 의회 역할, 한국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의견 교환
- **(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회 만찬)**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, DDA 협상 진전 위한 한국 역할에 대해 의견 교환
- **(무역협회장 오찬)** 세계 경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, 다자양자 무역협정 추진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

- **[쌀 관세화 관련 논의]** 박대통령, WTO 사무총장 접견, WTO 사무총장에게 필리핀 쌀관세화 유에 협상 진행상황 문의
 - **(WTO 사무총장)** (원칙적) 모든 것 협상 가능, (현실적) 매우 어려운 일, 쌀 관세화 유에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
 - ※ (필리핀) 회원국들에게 추가 유예기간 요구했지만 회원국들 승인(approve) 안 해, (한국) 금년 말 관세화유예시한 만료되는 상황 유사,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 예상
 - **(박대통령)** 향후 충분한 공감대 형성해서 입장 정할 것, 입장 정해지면 WTO 차원의 적극적 협조 당부
 - ※ WTO 사무총장, 비록 WTO 사무국은 회원국 간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나, 개인적으로 관련 회원국들이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 이해하도록 노력 언급

【평가】

- **[WTO 사무총장 입장]** ' 13.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 계기 합의된 “발리 패키지” 의 원활한 이행, “DDA 협상 작업계획” (금년 말 수립 예정) 논의의 진전 모색 위한 주요 통상국가의 지지 확보, 국제사회의 긍정적 분위기 형성 노력
- **[한국 입장]** 글로벌 주요 통상국가로서 위상 제고, 농업분야의 민감성 인식 시키면서도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대한 기여 의지 보여준 계기

자료 : KBS(2014.5.16.) / 국민일보news1·NEWSis·동아일보·매일경제·머니투데이·서울경제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데일리·파이낸셜뉴스·조선일보(2014.5.17.) / 내일신문·농민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4.5.19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, 「WTO 사무총장 방한 결과(’ 14.5.15~16)」, 외교부 보도자료, 「윤병세 외교부장관,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 및 WTO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포괄적 협의», 청와대 보도참고자료, 「박근혜 대통령,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(2)」, 청와대 뉴스, 「대통령,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」(2014.5.16.)

☞ 농정이슈

□ TPP 협상, 연내 타결 불투명

- [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협상 위한 장관회의(12개국) 개최, 5.19~20일]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 제자리, 연내 타결 불투명, 향후 확실한 일정 제시하는데 실패
 - ※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시장 접근·규정에 대해 더 논의 예정, 7월 수석대표회의 개최 예정(월스트리트저널(WSJ) 보도)
- [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(USTR) 대표] “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여전”, 언제쯤 협정 타결 가시화될지에 대해 “야심작·심층적이며 수준 높은 결과를 얻어내는 순간, 합의에 도달할 것”
- [미국·일본, 실무급 협의, 5.29~30일]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, 양국 간 쟁점 해소 위해 집중 논의, 하지만 TPP 참여국 간의 모든 쟁점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 예상

자료 : 서울경제·세계일보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파이낸셜뉴스(2014.5.22.) / 농민신문(2014.5.23.)

〈산업통상자원부,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〉

- [제20차 APEC* 통상장관회의 참석] 5.17~18일, 중국 칭다오에서 “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” 주제로 개최,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 참여
 - ※ 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: 1989년 발족, ‘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’ 또는 ‘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’라고 하며,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기술협력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 주요 목적
- (주요의제) ① 지역경제통합 증진, ② 혁신 발전,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, ③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를 중점과제(priorities)로 논의
- (논의내용) 한국이 APEC내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, 혁신 발전, 경제개혁 및 성장 의제와 관련 회원국들은 경제개혁, 환경, 여성, 중소기업 이슈에서의 역내 협력 강조
- [WTO 사무총장 참석, 다자간 무역체제 활성화 방안 논의] 발리 패키지의 충실한 이행 및 포스트 발리계획 마련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 활성화 위한 방안 논의
 - (논의내용)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('13.12월) 결과인 발리패키지의 차질 없는 이행, '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(standstill) 연장 합의, 이에 관한 별도 성명서 발표
 - ※ 아울러, 정보기술협정(ITA) 품목 확대 협상 관련, 회원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균형적,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 결과 유도 합의

☞ 농정이슈

- [주요국과 양자통상장관 회담(5개국)] 중국, 호주, 캐나다, 멕시코, 베트남과 양자 회담 가져 **한중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** 등 관련국들의 입장 및 동향 파악, **협력 강화 방안 논의**
 - 자료 : NEWSis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·파이낸셜투데이(2014.5.19.)
 - 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윤상직 장관,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-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주도 사업 제안, TPP, 한-중 FTA 관련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개최-」(2014.5.19.)

〈한·중 FTA 제11차 협상 개최(5.26~30일, 중국)〉

- [한중 FTA 제 11차 협상 개최] 2014.5.26~30일 5일간 중국(쓰촨성 메이산)에서 개최, **한중 양국 FTA 진전 기회모색**
- [논의 진행 방향] 상품, 서비스, 투자,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**포괄적·집중적 논의 진행**
 - 자료 : news1·NEWSis·데일리안·매일경제·머니투데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데일리아이투데이·조선일보·파이낸셜뉴스(2014.5.23.)
 - 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‘한중 양국 FTA 진전 기회모색’ - 한중 FTA 제11차 협상 개최(5.26.-5.30., 중국) -」(2014.5.23.)

□ 2013년도 북한 대외무역규모 73억4천만 달러, 역대 최대

- [‘13년도 북한 대외무역규모*] 73억4천만 달러, 전년대비 7.8%↑
 - ※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「2013년도 북한대외무역동향」 발표
- (수출입) 수출 32억2천만 달러, 수입 41억2천만 달러
- (무역적자) '12년, 10억5백만 달러 → '13년, 9억8백만 달러
- (대북 교역 국가수) '12년, 71개국 → '13년, 79개국
- [국가별 동향] 북한 최대 교역국은 중국, 전체 대외무역의 89.1%
 - ※ 북한-중국 간 교역, 수출입합계, 금액기준: ('11) 88.5% → ('12) 88.3 → ('13) 89.1
- (중국) 북한 전체 수출의 90.5%, 수입의 88% 차지, **중국의 각종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, 대중국 의존도는 소폭 상승**
 - ※ 북한 1~4월 동안 러시아 밀가루 수입 급증(전년대비 41%↑), 반면 중국은 전년대비 70%↓ → 식량이 부족한 매년 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밀가루 수출이 집중되는 시기(1~4월)임에도 불구하고, 수출 대폭 감소한 점에 주목, 중국 의존 낮추고 북·러 간 무역이 활발해지는 신호로 풀이(중국 수출입 통관검사 담당하는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, 5.20일)

농정이슈

- **(북한 10대 교역 대상국 중 6개국이 아시아)** 중국 외 아시아 국가 비중이 절대적
※ 수출입 합계, 금액기준 중국(6,547백만 달러) > 러시아(104.2) > 인도(97.9) > 태국(95.6) > 싱가포르(60.8) > 대만(40.5) > 홍콩(32.6) > 우크라이나(27.7) > 브라질(27.4) > 방글라데시(26.7)

○ **[최대 수출 품목] 광물성 연료(석탄, 갈탄)**, 전체 수출 중 **44.7%**, 전년대비 13.8%↑
(대중국 수출비중 96.6%)

- **(섬유제품)** 전체 수출 중 **16.1%**, 의류 임가공의 확대로 **전년대비 33.7%↑**, 주요 수출 품목 중 최대 증가율 기록(대중국 수출 96.3%)

○ **[최대 수입 품목] 광물유(원유, 정제유 포함)**, 전체 수입 중 **19%**, 반면 전년대비 3.7%↓(대중국 수입비중 94.5%)

- (차량 및 부품) 전체 수입 중 6.2%(대중국 수입비중 93.6%)

※ 나진-하산 철도 건설로 인해 러시아 수입 증가에 기인

자료 : 연합뉴스(2014.5.21.) / 경향신문-news1-NEWSis아시아경제연합뉴스YTN조선일보(2014.5.22.) / 데일리안데일리NK세계일보(2014.5.23.)

참고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도자료_「작년 북한 대외무역규모 73억 달러..역대 최대 - 2012년 대비 7.8% 증가, 대중 무역의존도 89.1%로 압도적 비중 -」(2014.5.22.)

저농약 재배 과수농가 중 17%만 무농약·유기인증 전환 의지

○ **[저농약인증제 폐지('16년~), 향후 과실류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부족 초래]** 유기·무농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 요구하는 과실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업 포기 농가 발생 전망

※ '12년 기준 전체 저농약인증 면적 중 과실류 비중 62.5%로 매우 높고, 전환 시기도 '16년 집중돼 있어 '16년 이후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감 예상

- **(과수재배농가 유기전환의지 낮은 편)** 저농약인증제 폐지 후 농가들의 유기·무농약 전환 의지 조사 결과, 전환의지 매우 낮은 편(한국농촌경제연구원, KRED)

※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후 전환 의지: 유기·무농약으로의 전환(36.4%) > 저농약 유지(28.6%) > GAP 전환(21.8%) > 관행재배(13.2%)

※ 유기·무농약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에 대해 품목별 비중: 곡류 58.8% > 채소류 38.0% > 과실류 17.0%

- **(기존 학교급식 납품 판로 감소 전망)** 저농약인증 폐지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낮췄지만 불이익 당하는 농가 발생 예상

○ **[정부, 장기적 대책 시급]**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농약인증 폐지되는 시점에서 **농가가 활용 가능한 유기 과수재배 기술개발 시급, GAP*제도 개선해 저농약 농가 흡수**하는 정책 필요

농정이슈

※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, 수확 후 관리,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농약,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

자료 : 원예산업신문(2014.5.21.)

병해충 발생, 5~10일 이상 빨라져 조기 방제 요구

○ **[병해충 발생, 예년보다 5~10일 이상 빨라져 농작물 피해 우려]** 농촌진흥청농식품부 산림청 협의회 개최(5.13일)*, 이상기온에 따라 애멸구 등 주요 병해충 발생이 예년보다 5~10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**조기 방제 필요****

※ 협의회에 참석한 병해충 전문가들은 '14.3월까지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.4℃, 전년대비 2.1℃ 높게 나타나 월동 해충이 5~10일 이상 빨리 발생 전망

※※ 기후온난화에 따른 4~6월 평균기온 상승으로 해충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발생량 또한 많아져 농작물 피해 우려가 높아 초기 방제가 중요

○ **[향후계획]** 5월 말~6월 초 병해충 집중 출현 예상됨에 따라 영농현장 대상으로 예찰 강화, 산림청·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통해 발생 초기 방제에 최선을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4.5.19.) / 농민신문-원예산업신문(2014.5.21.) / 한국농업신문(2014.5.23.)

참고 : 농촌진흥일보 보도자료_「주요 병해충 발생 예년보다 5~10일 이상 빨라져」(2014.5.17.)

OECD, 생산자지지지추정치(PSE) 발표

○ **[OECD, 매년 PSE 발표]** 회원국들의 농업지지 수준 추정 위해 '86년부터 매년 '생산자지지지추정치(Producer Support Estimate)*' 발표

※ 농업지지지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의미, OECD 회원국 간 농업 지지 수준 비교 용이 위해 PSE 절대액 대신 '생산자총수취액'(농업총생산액 + 재정 지불액)에 대한 PSE 비율인 %PSE 널리 사용

〈생산자지지지추정치(PSE) 구성〉

• **(재정지불액)** 정부가 실제로 재정지불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농업보조금(subsidy), 농업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대상으로 함. 공공비축이나 연구개발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

• **(시장가격지지)** '국내외 가격차' 존재 시 이를 정책에 의한 지지(support)로 간주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추정치, 실제로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이론적인 수치

※ 시장가격지지 = (국내외 가격차) × (연간 국내 생산량)

- **(한국 %PSE, '12년 기준) 53.8%**, 스위스, 일본에 이어 높은 수준*

※ **(이유)** '시장가격지지'가 크기 때문, 한국 PSE에 있어서 실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'재정지불액'보다 '시장가격지지' 비중이 매우 높는데 기인

농정이슈

- (미국·EU %PSE, '12년 기준) 미국, EU 각각 7.1%, 19.0%로 낮은 수준*

※ (이유) '재정지불액'의 절대액이 큼에도 불구하고,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어서 '국내외 가격차' 작아 '시장가격지지'가 낮게 추정되는데 기인

- [한국 농업보조금(5.3%), OECD 평균(10.2%)의 절반 수준에 불과] 농업인에게 실제 지불되는 '재정지불액' 기준으로 농업보조 수준* 비교 시 한국 농업보조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

※ 스위스 34.4% > EU 15.2 > OECD 10.2 > 미국 6.4 > 한국 5.3

- [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반한 농업정책 추진] 주요국 FTA 협상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 증가 전망, 농업인 피해 우려됨에 따라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업지원 정책 추진 필요

자료 : NEWSis 시사뉴스(2014.5.20.) / 경향신문(2014.5.21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5.22.)

참조 : 농협경제연구소 NHERI 주간 브리프_「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과 시사점」(2014.5.19.)

6·4 지방선거, 정당별 주요 농정공약

- [새누리당] △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농업 경쟁력 강화, △열악한 농어촌 주거 공간을 쾌적한 거주 공간으로 조성, △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, △농어촌 교통·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
- [새정치민주연합] △농어촌 생태보존직불금 도입, △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, △FTA 이익공유제 도입, △직거래, 로컬푸드, 과대포장 혁신을 통한 농어민 수익증대, △농어업정책자금 금리 1%로 인하
- [통합진보당] △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, △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, △우리 동네에도 혁신학교를
- [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입장] 농업·농촌 공약 다수 포함되도록 촉구, 공약 실천의지 강조

자료 : 농민신문(2014.5.16.) / 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4.5.19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5.22.)

농정이슈

농협, 벼 무논점파 기술 적극 보급

- [농협,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경영비 절감 직파(점파) 시연회 개최, 5.16일] 생산비용·노동력 절감해 농촌의 고령화 및 쌀 시장 개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무논점파 기술 전국적 확대 노력

- [무논점파* 재배기술 적극 보급] 올해 12개 지역농협의 무논점파 시범사업 시작으로 재배기술 전국에 보급, ('13) 2.1% → ('24) 20% 확대

※ 농진청 조사결과, 못자리가 없는 벼농사로 각광받고 있는 무논점파는 기존 기계로 모 심을 때보다 노동력 최대 35%까지 절감, 10ha 당 160만 원 생산비용 절감 효과

〈무논점파재배 기술 장점; 농진청 농업기술정보〉

- (정의) 범씨 6립 정도를 점파해 모내기한 논과 동일한 형태로 벼 재배하는 기술
- (특징) - 무논(湛水)상태에서 5~7립의 종자가 균일하게 점파(點播)되어 입모가 안정적
- 무논상태에서 파종하여 잡초성 벼 발생 억제
- 적당한 깊이에 파종되어 도복 발생 방지
- 기계이앙과 비교 시 수량과 품질 차이 없음(2007, 작물원).

자료 : YTN(2014.5.16.) / 헤럴드경제(2014.5.17.) / 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(2014.5.19.) / 한국농업신문(2014.5.23.)

참고 :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일보_「벼 무논점파, 3년에 한 번은 기계이앙재배 하세요」(2014.4.15.)

전남 담양에서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체 검출

- [전남 담양 소재 종오리 농가, AI 항체 검출] 농식품부, 5.15일 채취한 혈청 40점(종오리: 20점, 육용오리: 20점)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체 검출, 해당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존재 여부 검사 중

- (H5형 혈청이 검출된 농장은 담양 해당 농가 1곳뿐) 담양 해당 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일환, 전국 종오리 농장(55개)에 대해 일제검사* 실시

※ 사육현황: 종오리(1,000수), 육용오리(1,400수)

- (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팀 파견) 주변 소독 및 이동제한조치, 역학관련 농가, 차량, 사람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중

자료 : KBS·SBS·YTN(2014.5.18.) / NEWSis·매일경제·서울경제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데일리(2014.5.19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5.22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전남 담양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검출」(2014.5.18.)

농정이슈

<제주 돼지유행성열사병 확산>

- [제주특별자치도, 돼지 유행성열사병 확산, 차단방역 강화] 제주시 한림읍에서 최초 발생(4.6일)한 돼지유행성열사병(PED)이 현재 20농가*(한림 14, 한경 1, 대정 5)에서 발생(5.16일)함에 따라, 추가 확산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양돈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양돈농가의 철저한 이행 당부

- (제주 유입 전파원인) 사람, 돼지출하·분뇨·사료차량에 의한 것으로 분석, 자돈 폐사 등 PED*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

※ 폐사를 높고 전염성 빠른 것이 특징, PED는 '92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·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·관리

자료 : NEWSis(2014.5.19.) / 세계일보(2014.5.20.)

참고 : 제주특별자치도청_제주도정뉴스「돼지유행성열사병 ‘비상’, 철통 방역으로 확산 방지」(2014.5.16.)

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 주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23.)

□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, 향후 추진방안 논의

- [「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」 개최, 5.22일] 농식품부 장관 주재,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, 향후 추진방안 논의
 - ※ 참석자: 농촌진흥청, 산림청, 농협, 농어촌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마사회, 농촌경제연구원, 유관기관·대학교수·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(총 33명)
- [규제개혁 추진성과] 4~5월 기간 중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(T/F), '14년 감축 대상 규제의 12% 감축, 전체규제의 33%에 대해 네거티브·일몰 설정 목표
 - (규제개선 추진계획 구체화)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(T/F) 실무작업반별 현장 간담회·전문가 회의 개최(총 16차례) 결과 총 32개 핵심규제개혁과제(세부과제 118건) 발굴
- [농식품분야 규제개혁 목적] 실효성 있는 농업 6차산업화 정책 추진, 먹거리 및 생활양식의 변화,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산업 수요에 적기 대처
- [농식품분야 규제 특징] 농식품분야 규제는 79개 법령, 행정규칙 931건, 농산물 안전, 식품산업육성, 농촌지역개발, 식량안보 등 규제 적용되는 분야 다양
- [규제개혁 추진방향] 규제개혁 성과 제고, 공익목적의 규제 품질 개선(식량안보, 위생 및 안전, 농업인복지, 농촌환경보전), 농지제도 규제 개선
- [향후계획] 32개 핵심과제 처리 신속 및 규제개혁 적극 노력
 - ※ (농식품부, 단독 처리가능한 13개 과제) 관련 법령 개정
 - ※ (관련부처와의 협의 필요한 19개 과제)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통해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식품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노력
- (규제비용총량제* '15년 본격 도입) 피규제자 수가 많거나 규제비용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
 - ※ 규제를 새로 만들게 될 때 '비용' 기준으로 기존 규제 폐지하여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는 것을 말하며, 신설 규제 관리,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실효성 높이겠다는 취지

☞ 정책브리핑

- **(산림청)** 산지에서의 생태축산 활성화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, 농식품부와 산림청간 협업 더욱 확대
- **(농식품부)** 규제개혁 과제 발굴 지속,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위해 7.15일까지 특별공모 중,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

■ 농식품분야 핵심규제개혁과제(32개 과제) ■

구분	주요내용
새로운 농식품산업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(12개 과제)	① 전통주 생산자 요건 완화 및 제조유통관련 규제 완화(기재부, 식약처, 국제청 협의) ② 농가의 인삼약용작물 가공유통 진입규제 완화(복지부, 식약처 협의) ③ 식용 곤충을 활용하는 식품산업 육성 및 곤충산업 창출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(식약처 협의) ④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및 외식 사업자 단체 인가 요건 완화(기재부 협의) ⑤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시설 설치 입지규제 등 완화(국토부 협의) ⑥ 동물 장묘업 입지 규제 완화(국토부, 환경부 협의) ⑦ 농업기계류의 범위(기준) 확대 등을 통해 농기계 산업 활성화(국토부 협의) ⑧ 산지에서의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(산림청 협의) ⑨ 농협,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사업체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완화 및 보험업무 수탁대상 확대 등으로 농업재해 보험 활성화(금융위, 해수부 협의) ⑪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입지제한 완화 및 목적 외 사용관련 이중규제 완화(국토부, 환경부 협의)
사업추진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(8개 과제)	⑫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우선 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⑬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(식약처 협의) ⑭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인정 심사절차 개선 및 표시 규제 완화(식약처 협의) ⑮ 동물물 수출입 무역 활성화를 위한 검역 등 절차 간소화(식약처, 관세청 협의) ⑯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⑰ 농산물 관리제도(GAP) 운용을 위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⑱ 종자 검사검정 업무 일원화 및 종자 품질보호권 설정 관련 서류 간소화 ⑲ 도매시장 평가체계 일원화를 통한 평가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
시설 및 인증 등 기준 합리화 및 이중규제 해소 (6개 과제)	⑳ 해외농업개발 투자 및 신고 관련 규제 완화 ㉑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(환경부, 식약처 협의) ㉒ 축산물 가공위생 시설 관련 기준 완화(식약처 협의) ㉓ 식품관련 표시규제 제도 개선으로 비용절감(공정위, 식약처 등) ㉔ 화훼 관련 선물 기준 합리화(권익위 협의) ㉕ 원산지 등 표시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 ㉖ 농업생명자원 분양 제한기준 완화 및 생명자원 관리기관 유효기간 연장
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(2개 과제)	㉗ 귀농귀촌인의 농식품사업 참여요건 완화(국토부, 기재부, 고용부, 금융위 등 협조) ㉘ 도시농업 자원센터 등 지정취소 요건 명확화 및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요건 완화
농지 소유 및 전용 관련 절차의 합리화 (4개 과제)	㉙ 농지소유 제한 합리화 및 농지산지의 범위 명확화(산림청 협조) ㉚ 농지전용 기준 및 절차 개선 ㉛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편의성 제고 등 제도개선 ㉜ 농지연금 및 농지매입 관련 규제 완화

☞ 정책브리핑

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안) 마련

□ 개요

- **[녹색성장위원회* 제4차 회의 개최, 5.21일]** '14~' 18년간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이 포함된 '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안)' 심의, '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' 확정
 - ※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·조율하는 총리소속기구로 녹색성장, 기후, 에너지,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, 총 38명으로 구성(공동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)
- **(논의내용)** '제2차(' 14~' 18년) 녹색성장 5개년 계획(안)', '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(안)', '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안', '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' 논의

□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안) 주요내용

- **[추진경과]** (' 13.9월) 연구용역 발주 → 전문가회의, 녹색위 민간위원 간담회, 토론회, 관계부처 회의 → (' 14.5월) 정부안 마련
- **[기본방향]** 지난 5년간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성과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**녹색성장 정착**에 초점
 - ※ i) 핵심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중점 이행, ii) 과학기술·ICT를 활용하여 창조 경제 선도, iii) 시장 및 민간 역할 확대, iv) 경제-환경-사회의 조화 고려
- **[향후계획]** 녹색성장위원회(5.21일) 및 국무회의의 심의 후 확정·발표, 이행·점검

□ 「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」 주요내용

- **[「친환경 에너지 타운* 시범사업」 본격 추진]** 님비(NIMBY)현상** 극복, 에너지 문제 해결
 - ※ 매립지 등 기포·협오시설에 에너지 자립,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,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
 - ※ ※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
- **(의의)** 한계에 봉착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 보완 위한 새로운 해법 제시

☐ 정책브리핑

- **[시범사업 대상지*3곳 선정]** 광주광역시(운정동), 강원 홍천군(소매곡리), 충북 진천·음성 혁신도시 일원 선정, 추진계획 확정
 - ※ 환경기초시설,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(8명)로 '시범사업 선정위원회' 구성, 서면 검토-현장실사-최종평가(4.9~4.23) 거쳐 최종 3개 지역 선정
- **[강원 홍천군] (가축분뇨처리시설 활용)** 바이오가스(3천㎖/일) 생산 후 도시가스화해 주민에게 공급하는 모델, **(유기성 폐기물 활용)** 퇴비(20톤/일)·액비(30톤/일)* 생산,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** 조성
 - ※ 퇴비·액비 판매수익은 주민기금으로 조성해 주민공동사업·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 (연간 52백만 원)
 - ※ ※ 태양광은 전기판매 수익(연간 52백만 원)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
- **(기대효과)**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 모델은 국내 최초로서, 향후 전국 확산의 롤 모델

Ⅱ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안) 기본체계



※ (구성) 비전, 3대 정책목표, 5대 정책방향, 20대 중점추진과제(130개 세부추진과제)

자료 : 국무조정실(2014.5.21.)

☐ 정책브리핑

2014년 말산업육성 세부 실행계획 추진

☐ 말산업육성 5개년('12~'16) 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 마련

- **['14년 말산업육성 세부 실행계획 마련]** 말산업을 농업·농촌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
 - **(정책방향)** 말산업육성 5개년('12~'16)종합계획 차질 없는 이행 위해 말산업 인프라구축, 수요확충 등에 중점 지원
- **['14년 말산업 육성 투자규모] 373억 원***, 전년(278억 원)대비 95억 원 증가
 - ※ 축산발전기금(201억 원) +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(172억 원)

☐ 중점 지원 내용

- **[말산업 인프라 확충: ('13) 107억 원 → ('14) 187]** 승마장 신규 및 개보수, 조련시설 지원 통한 인프라 확충, 지역단위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요건 완화 및 추가 지정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
- **[경쟁력 제고 및 경영개선: ('13) 51억 원 → ('14) 50]** 말 생산농가·승마장에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여건 개선 위해 경영개선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확대
 - ※ 전문승용마 도입,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번식기반 구축 등
- **[말 수요확충/연관산업 육성: ('13) 72억 원 → ('14) 81]** 승마활성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, 말산업 산업화 위한 연관산업 육성 지속 투자
- **[지속 성장기반 구축: ('13) 53억 원 → ('14) 55]** 말 등록 시스템 구축, 말 전염병 예방 통해 안정화 도모, 승마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
- **[향후계획]** 말산업을 FTA시대 농업분야 대표 6차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·지방자치단체·말산업 관련 기관·사육농가의 공동 노력 필요, 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하여 정책 추진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19.)

2015년 들녘경영체 선정 위한 신청 접수

□ 주요내용

- **[들녘경영체 선정·지원]** '15년 50개소('14년 26개소) 선정·지원, 50ha이상 전국 들녘 2,800여 개소 중 '20년까지 500개소 들녘경영체 육성
 - ※ 경영체(누계): ('09) 12개소 → ('10) 30 → ('11) 99 → ('12) 118 → ('13) 132 → ('14) 158 → ('15~'20P) 500
- **(신청대상)**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, 농협, 미국 종합처리장(RPC), 건조저장시설(DSC)
- **(지원내역)** 교육컨설팅 및 시설·장비(육묘장, 광역방제기 등) 지원
- **(신청방법)**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시·군 담당과에 제출(5월 말까지)
- **[규모화 영농 실현]** 전체 벼 재배 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1.2ha인 반면 158개 들녘경영체는 평균 202ha*로 다수 농가가 참여한 규모화 영농 실현, 공동 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10% 수준
 - ※ '99~'14년 지원한 158개소 평균 면적
- **[지원 내용]** i) 농가 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1~3년간 개소 당 약 25백만 원 지원, ii) 우수조직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공동 육묘장,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 지원(2억 원 수준)
 - ※ 부담비율: 국비(50%) + 지방비(40%) + 자부담(10%)
- **[향후계획]**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체계 개편하여 조직화 형태, 단일영농계획, 공동 농작업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공동 경영체 심화 유도
- **[기대효과]** 농지이용 규모화,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규모화 영농 통해 생산비 절감
 - ※ (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성과) 들녘단위 품종과 재배방법 통일로 균일한 고품질쌀 생산·공급, i) 공동육묘로 품종 통일, 비배관리로 질소질 시비 감소, ii) 미국종합처리장(RPC) 등과 연계한 계약재배·생산·출하로 고품질 쌀 안정적 공급, iii)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신규구입 및 과잉보유 방지하여 농가 부채 방지하고 농기계 효율적 활용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20.)

농업과 2, 3차산업 융·복합의 성공모델 발굴

□ 제3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

- **[목적]**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6차산업화 성공 모델 발굴, 전파하여 농업인의 6차산업화 촉진
- **[대회일정]** (지자체 경진대회, ~6월 초) 지자체 주관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사례 추천, (중앙 경진대회, 6~8월) 서면평가(현장심사 포함), 발표평가(8.7일)
 - (시상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점(대상1, 금상2, 은상3, 동상4)
 - **(1회 대회 비교 시 차이점)** 지자체 경진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**지역주민 및 지역 농업인의 6차산업 관심도 제고**, 발표평가 시 국민평가단의 참여 확대 (50명)*, 경진대회 성과를 지자체 시상 등과 연계**
 - ※ 6차 산업 우수사례 현장 발표대회(8.7일): 귀농귀촌인, 대학생, 파워블로거 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 평가단 수와 폭 대폭 확대 예정
 - ※※ 우수 지자체 포상, 6차산업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
- **[선정된 우수사례 지원]**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·배포 및 신문·방송 홍보, 농업인 대상 관련 교육 시 6차산업 현장 교육 장소로 활용
 - ※ 1차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영체들의 고용실적·매출액 크게 신장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19.)

연구지원 2014년 4월 생산자 및 총산출 물가지수

자료 : 한국은행(2014.5.20.)

□ 생산자물가지수

- [' 14.4월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품목] 896개, 상품 794개*, 서비스 102개 품목
※ 농림수산물 65, 광산물 8, 공산물 710, 전력·가스 및 수도 11, 서비스 102
- [' 14.4월 생산자물가지수] 전월대비 0.2%↓, 전년 동월대비 0.3%↓
 - (농림수산물) 채소 및 과일 내렸으나 축산물 올라 전월대비 보합
 - (공 산 품) 석유·화학제품, 전기및전자기기 중심으로 전월대비 0.4%↓
 - (전력, 가스 및 수도) 전월대비 보합
 - (서 비 스) 운수, 금융및보험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3%↑

■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

단위: %

구 분	가중치	전월대비				전년 동월대비			
		14.1월	2월	3월	4월p	14.1월	2월	3월	4월p
총 지 수	1000.0	0.3	0.1	0.0	-0.2	-0.3	-0.9	-0.5	-0.3
농 립 수 산 품	31.5	4.9	0.8	0.3	0.0	-1.8	-2.9	1.0	1.3
식량작물	6.3	-0.3	-0.3	-0.5	-0.5	-4.8	-5.6	-5.5	-5.4
채소	5.0	19.1	0.2	-5.6	-4.3	-16.8	-17.9	-12.9	-13.6
과실	2.7	15.0	0.5	-5.5	-0.8	17.3	7.2	3.2	4.6
축산물	8.8	-2.5	-1.8	9.5	3.6	9.4	8.1	15.9	16.0
수산물	5.0	6.2	0.5	0.1	0.0	-9.4	-8.8	-7.3	-8.5
공 산 품	615.4	-0.2	0.1	-0.2	-0.4	-1.8	-2.4	-2.0	-1.9
석탄 및 석유제품	55.9	-2.8	1.9	-0.2	-1.9	-4.5	-6.9	-4.1	-3.1
화학제품	110.9	0.6	-0.3	-1.0	-0.9	-0.5	-2.0	-2.5	-2.3
제1차금속제품	108.6	-0.1	-0.5	-0.3	-0.1	-5.8	-7.0	-5.5	-5.6
전기 및 전자기기	91.9	-0.6	0.0	-0.3	-0.5	-2.5	-3.0	-3.6	-4.1
전력·가스·수도	59.2	2.3	0.0	0.0	0.0	8.5	6.9	5.5	5.5
서 비 스	291.5	0.4	0.0	0.2	0.3	1.3	1.3	1.3	1.6
음식점및숙박	39.0	0.4	0.1	0.2	0.3	1.3	1.1	1.5	1.6
운수	50.2	0.1	-0.3	0.2	0.5	2.5	2.4	2.0	2.4
금융및보험	29.5	1.1	-0.1	0.1	0.8	-0.3	-0.4	-0.5	1.2
부동산	44.9	0.2	0.2	0.0	0.1	1.8	1.7	1.6	1.7

주: 당월 지수는 잠정치(preliminary)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

2014년 4월 농산물 주요 등락 품목

단위: %

구 분	전월대비	전년 동월대비
식량작물	감자 4.7, 고구마 1.9 / 콩 -0.7, 쌀 -0.6	보리쌀 42.5 / 콩 -37.0, 감자 -6.4, 쌀 -3.0
채소	시금치 42.3, 상추 22.3 / 호박 -37.1, 오이 -36.0, 풋고추 -27.5, 파 -22.1, 토마토 -10.8	풋고추 38.3, 부추 20.0 / 양파 -75.4, 배추 -72.1, 파 -62.6, 마늘 -30.3, 건고추 -25.5
과실	배 1.0 / 사과 -3.5	감귤 25.5, 사과 14.8, 감 1.1 / 배 -36.3
축산물	닭고기 16.8, 오리고기 16.7, 달걀 3.6, 돼지고기 1.2 / 생우유 -0.4, 쇠고기 -0.7	오리고기 36.4, 돼지고기 30.2, 닭고기 13.5, 생우유 10.9, 쇠고기 7.5, 달걀 3.2

□ 총산출물가지수

- [의미]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 파악을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
- (작성기준) 중분류(27부문) 기준 작성, 수출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출물가지수에 통관시차 반영
- [' 14.4월 총산출물가지수] 전월대비 0.7%↓, 전년 동월대비 2.1%↓
 - (농림수산물) 수출가격이 올라 전월대비 0.1%↓
 - (공 산 품) 국내출하(석탄및석유제품, 화학제품 등) 및 수출(화학제품, 전기 및전자기기) 가격이 모두 내려 전월대비 1.1%↓

■ 총산출물가지수 등락률

단위: %

구 분	가중치	전월대비				전년 동월대비			
		14.1월	2월	3월	4월p	14.1월	2월	3월	4월p
총 지 수	1000.00	0.2	0.2	-0.1	-0.7	-0.6	-1.4	-1.4	-2.1
국내출하	770.67	0.3	0.1	0.0	-0.2	-0.3	-0.9	-0.5	-0.3
수출	229.33	0.2	0.6	-0.3	-2.6	-1.7	-3.6	-4.7	-7.8
농 립 수 산 품	25.15	4.6	0.6	0.3	-0.1	-2.2	-3.4	0.3	0.6
국내출하	24.10	4.9	0.8	0.3	0.0	-1.8	-2.9	1.0	1.3
수출	1.05	1.0	0.6	-0.9	-3.5	-6.3	-4.5	-8.2	-11.7
광 산 품	1.82	0.0	0.0	0.8	-0.1	4.7	2.8	3.5	3.4
공 산 품	702.79	-0.1	0.3	-0.2	-1.1	-1.7	-2.8	-2.9	-3.8
국내출하	474.51	-0.2	0.1	-0.2	-0.4	-1.8	-2.4	-2.0	-1.9
수출	228.28	0.2	0.6	-0.3	-2.6	-1.7	-3.6	-4.7	-7.8
전력·가스·수도	45.72	2.3	0.0	0.0	0.0	8.5	6.9	5.5	5.5
서 비 스	224.52	0.4	0.0	0.2	0.3	1.3	1.3	1.3	1.6

주: 당월 지수는 잠정치(preliminary)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

2014년 4월 농축산물 수입가격 동향

농산물 수입가격 동향

- **[곡물류]** 전월대비 팥·커피(생두) 제외한 곡물류 하락
 - ※ 전년 동월대비 팥(건조)↑, 강낭콩(건조)·옥수수(사료용·팝콘용·기타)·밀·커피↓
 - **(팥_건조, 커피_생두)** 전월대비 각각 24.6%↑·8.2%↑
 - **(강낭콩_건조)** 전월대비 15.6%↓
 - **(옥수수, 팝콘용·사료용)** 전월대비 각각 5.3%↓·1.6%↓
 - **(커피_원두)** 전월대비 5.3%↓
 - **(제분용 밀)** 전월대비 5.4%↓
- **[과일류]** 전월대비 바나나 제외한 키위·포도·파인애플·오렌지·레몬 하락
 - ※ 전년 동월대비 오렌지·레몬·키위↑, 포도·바나나·파인애플↓
 - **(바나나)** 전월대비 1.9%↑
 - **(키위·포도·파인애플)** 전월대비 각각 9.4%↓·9.2%↓·5.7%↓
 - **(오렌지·레몬)** 전월대비 각각 1.3%↓·0.2%↓
- **[양념채소류]** 전월대비 고추·양파(냉장) 제외한 생강·마늘·양파(냉동) 하락
 - ※ 전년 동월대비 고추·마늘(냉장)·생강↑, 마늘(냉동)·양파↓
 - **(고추, 건조냉동)** 전월대비 각각 13.7%↑·2.5%↑
 - **(양파, 냉장냉동)** 전월대비 각각 2.1%↑·2.4%↓
 - **(생강·마늘_냉동)** 전월대비 각각 27.1%↓·2.6%↓
- **[일반채소류]** 전월대비 당근·도라지·무(건조) 제외한 양배추·무(냉장)·호박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도라지·당근↓, 배추·호박·양배추·무↑
 - **(당근·도라지)** 전월대비 각각 9.0%↓·5.3%↓
 - **(무_건조냉장)** 전월대비 각각 2.8%↓·1.7%↑
 - **(양배추·호박)** 전월대비 각각 31.2%↑·0.2%↑
- **[전과류]** 전월대비 밤(냉동)·호두 하락, 밤(건조)·아몬드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아몬드↑, 밤·호두↓

- **(아몬드·호두)** 전월대비 각각 0.7%↑·0.8%↓
- **(밤_냉동·건조)** 전월대비 각각 14.9%↓·3.2%↑
- **[가공제품]** 전월대비 두부·설탕·밀가루·김치 모두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두부·설탕·밀가루·김치↓
 - **(두부·설탕·밀가루·김치)** 전월대비 각각 29.1%↑·6.9%↑·2.4%↑·2.1%↑

축산물 수입가격 동향

- **[소고·돼지고기·닭고기]** 전월대비 소고·돼지고기·닭고기 모두 하락
 - ※ 전년 동월대비 소고기↑, 돼지고기·닭고기↓
 - **(소고·돼지고기·닭고기)** 전월대비 각각 0.6%↓·0.9%↓·9.6%↓

주요 육류 수입가격 동향

품 목	전월대비(%)				전년 동월대비(%)			
	'14.1월	'14.2월	'14.3월	'14.4월	'14.1월	'14.2월	'14.3월	'14.4월
소 고 기	1.5	△5.6	2.4	△0.6	11.8	4.6	4.8	2.5
소갈비(냉장)	5.0	8.3	△10.5	△0.7	32.3	32.3	28.1	23.4
소갈비(냉동)	5.7	△21.0	17.6	△1.5	30.4	5.2	20.8	22.4
뼈없는소고기(냉장)	△4.6	6.5	△5.5	△0.1	△1.2	5.8	△3.3	△9.0
뼈없는소고기(냉동)	2.7	0.0	△4.1	1.1	4.2	2.1	△1.9	△2.3
돼 지 고 기	6.0	3.0	2.3	△0.9	△1.7	2.3	0.8	△2.1
삼겹살(냉동)	1.9	1.5	1.6	△0.4	△8.2	△6.9	△7.6	△8.1
기타(냉동돼지)	14.6	4.5	△1.2	1.7	△2.7	5.2	△1.0	1.5
닭 고 기	△7.4	1.9	0.8	△9.6	△9.1	△6.1	△5.8	△15.9
닭가슴(냉동)	△8.9	9.6	△3.0	△4.7	11.9	19.4	10.9	△2.3
닭날개(냉동)	△1.3	3.5	0.4	△0.0	△3.8	3.0	0.4	△1.2
닭다리(냉동)	△7.6	2.4	0.7	△10.1	△10.7	△7.3	△6.5	△17.0

- **[가공제품]** 전월대비 모짜렐라치즈 제외한 소시지·버터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버터·모차렐라치즈·소시지↑
 - **(모차렐라치즈)** 전월대비 1.7%↓
 - **(버터·소시지)** 전월대비 각각 10.7%↑·8.7%↑

자료 : 관세청(2014.5.23.)

IMD,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

총평

- [IMD(국제경영개발연구원)*, '14년 국가경쟁력 평가] 한국 26위, 전년대비 4단계 하락

※ 상설 부속기관인 WEF(세계경제포럼)을 통해 지난 1980년부터 매년 각국의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발표, 평가결과 보고서는 객관성·정확성으로 국제적 권위 인정

- (국가별) 미국(1위) > 스위스(2위) > 싱가포르(3위) 순, 다수 유로존 국가 순위는 상승한 반면, 인도, 브라질,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들은 하락

■ 201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국가별 순위

순위	국가	'13 순위	변동	순위	국가	'13 순위	변동	순위	국가	'13 순위	변동
1	미국	1	-	21	일본	24	(↑3)	41	멕시코	32	(↓9)
2	스위스	2	-	22	오스트리아	23	(↑1)	42	필리핀	38	(↓4)
3	싱가포르	5	(↑2)	23	중국	21	(↓2)	43	포르투갈	46	(↑3)
4	홍콩	3	(↓1)	24	이스라엘	19	(↓5)	44	인도	40	(↓4)
5	스웨덴	4	(↓1)	25	아이슬란드	29	(↑4)	45	슬로바키아	47	(↑2)
6	독일	9	(↑3)	26	한국	22	(↓4)	46	이탈리아	44	(↓2)
7	캐나다	7	-	27	프랑스	28	(↑1)	47	루마니아	55	(↑8)
8	UAE	8	-	28	벨기에	26	(↓2)	48	헝가리	50	(↑2)
9	덴마크	12	(↑3)	29	태국	27	(↓2)	49	우크라이나	49	-
10	노르웨이	6	(↓4)	30	에스토니아	36	(↑6)	50	페루	43	(↓7)
11	룩셈부르크	13	(↑2)	31	칠레	30	(↓1)	51	콜롬비아	48	(↓3)
12	말레이시아	15	(↑3)	32	카자흐스탄	34	(↑2)	52	남아프리카공화국	53	(↑1)
13	타이완	11	(↓2)	33	체코	35	(↑2)	53	요르단	56	(↑3)
14	네덜란드	14	-	34	리투아니아	31	(↓3)	54	브라질	51	(↓3)
15	아일랜드	17	(↑2)	35	라트비아	41	(↑6)	55	슬로베니아	52	(↓3)
16	영국	18	(↑2)	36	폴란드	33	(↓3)	56	불가리아	57	(↑1)
17	호주	16	(↓1)	37	인도네시아	39	(↑2)	57	그리스	54	(↓3)
18	핀란드	20	(↑2)	38	러시아	42	(↑4)	58	아르헨티나	59	(↑1)
19	카타르	10	(↓9)	39	스페인	45	(↑6)	59	크로아티아	58	(↓1)
20	뉴질랜드	25	(↑5)	40	터키	37	(↓3)	60	베네수엘라	60	-

- (4대 분야별) 경제성과(20위)·인프라(19위) 전년대비 동일, 정부효율성(20위 → 26)·기업효율성(34위 → 39) 전년대비 하락
- (20개 중간부문별) 국내경제(13위)·고용(7위)·기술인프라(8위)·과학인프라(6위) 분야 우수, 반면 물가(50위)·기업관련 법규(42위)·사회적 여건(36위)·노동시장(36위)·경영활동(56위) 분야는 취약

한국 국가경쟁력 강점·약점 요인 분석

- [경제성과: 20위 → 20] (강점) 장기실업률(1위), 공공부문 고용비중(3위), 상품 수출액(7위), 경상수지 비중(12위) / (약점) 직접투자 유입액 관련 지표, 생계비 지수(53위), 관광수입(43위)
- [정부효율성: 20위 → 26] (강점) 정부보조금(2위), 재정수지(5위), 외환보유고(7위) / (약점) 관세장벽(58위),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(57위), 고령화 위험(46위)
- [기업효율성: 34위 → 39] (강점) 연평균 근로시간(3위), 공개기업수(9위), 경제와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(11위) / (약점) 회계감사의 적절성(59위), 시장변화 적응성(56위), 노사관계 생산성(57위)
- [인프라: 19위 → 19] (강점) 고등교육 수학률(2위), 기업의 R&D 지출(2위),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(5위) / (약점) 사이버 보안(58위), 중고등학생-교사비율(52위), 공해 문제(49위)
- [평가] 설문조사(2~3월) 당시* 과거 누적된 문제점 부각이 부정적 영향,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,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
 - ※ 개인정보 유출사건(1월 이후)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, 규제개혁 추진과정

향후계획

- [국가경쟁력 향상] 경제혁신 3개년 계획, 비정상의 정상화,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체질 근본적으로 전환
- [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] 현장점검·평가 및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하도록 노력
- [IMD가 제시한 '14년 한국의 정책과제] 투자,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, 남북 관계 관리,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,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

자료 : 기획재정부(2014.5.22.)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통행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